

한전 1271명·철도공사 1091명…공공기관 내년 2만여명 채용

■채용규모 최대 규모 기관 10곳

한국전력공사	1271
한국철도공사	1091
국민건강보험	1050
서울대병원	873
근로복지공단	871
부산대병원	856
한국수력원자력	661
한전KPS	536
경상대병원	507
경북대병원	466

취업포털 인크루트, 채용계획 상위 10개사 공개

전보공단 1050명·한국KPS 536명 등 사상 최대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공공기관들이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인 2만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시스템을 통해 채용계획을 발표한 346개 기관 중 상위 10개사를 22일 공개했다. 내년 공공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채용

을 하는 곳은 한전으로 일반 1016명, 고졸 255명 등 총 1271명이다. 이 중에는 청년인턴으로 지원한 일반 지원자와 고졸 지원자가 각각 500명, 190명씩 포함돼 있다. 한전 신입사원 초임은 3000만원 초반으로 알려졌다. 반면 평균 보수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7403만원선이다. 이어 한

국철도공사가 일반 873명, 고졸 218명 등 총 109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철도공사는 내년 1월 원서접수를 시작해 서류·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6월까지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입사원 초임은 2800만원 가량(전일제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6467만원이다.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뽑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일반 전형 840명, 고졸 전형 210명 등 총 1050명을 뽑기로 했다.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원서를 접

수, 3~4월에 본격적인 채용 전형을 한다. 초임은 2900만원, 직원 평균 연봉은 6277만원이다. 이외에 서울대병원(873명), 근로복지공단(871명), 부산대병원(856명), 한국수력원자력(661명), 한전KPS(536명), 경상대병원(507명), 경북대병원(466명) 순으로 많은 인력을 뽑는다. 한편, 정부는 청년 실업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양

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15만576명의 청년들이 408개소의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에 신규로 채용된 바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광주은행 AI 피해농가 금융지원

기업 3억원·가계 5천만원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조류독감(AI)’ 광주·전남지역 피해업체에 대한 경영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2일부터 ‘조류독감 피해농가 긴급 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긴급자금 지원대상은 조류독감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모든 자영업자로, 지원내용은 ▲운전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 지원 ▲만기도래시 우대금리를 통한 무내입 기한연장 ▲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이다. 지원금액은 피해업체당 기업대출 최대 3억원, 가계대출 최대 5000만원까지 신규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

여 연장이 가능하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상환금 및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납부유예를 통해 피해농가에 대한 금융비용을 최소화한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업체들의 금융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고, 광주은행 본점에 조류독감 피해업체에 대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접수받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송중욱 영업전략본부 부행장은 “조류독감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업체들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소재 피해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조속히 정상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기청, 불공정거래 근절 상황반 운영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환)은 22일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악의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지방중기청은 불공정행위 사전차단과 함께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불공정 상황반 운영에 맞춰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 운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5.73 (-2.23)	↓ 금리 (국고채 3년) 1.66% (-0.03)
↓ 코스닥 615.93 (-2.70)	↑ 환율 (USD) 1199.10원 (+5.20)



해양도시가스, 고려인마을 500만원 후원

해양도시가스(대표 김명환)는 21일 광주광역시청을 찾아 지역 고려인 마을의 필요물품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원을, 광주광역시청 관산자원봉사센터에는 소외계층 어린이 성탄절 선물 후원으로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김명환(사진 가운데) 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와 흥남진 광주광역시청 복지건강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양도시가스 임직원들은 매일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금하여 만들어진 ‘만미기금’을 매년 기탁하고 있으며,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현재 총 7550여만원에 이른다. 이 기금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연탄

배달 행사 등에, 2012년부터는 관산구청과 관산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연말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에 사용되었다. 올해는 고려인 마을과 관산구 관내 저소득층 어린이 성탄절 선물을 후원하기로 했다. 해양도시가스 김명환 대표이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고려인들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자 하며, 나눔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자금사정 지난해보다 악화

중기중앙회 전국 300곳 조사…판매 부진·대금 지연 등 애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판매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금사정이 지난해 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자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광주 등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32.6%가 ‘금년 자금 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 4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영업이익 감소’(32.7%), ‘판매대금 회수지연’(19.4%), ‘제조원가 상승’(7.1%) 순이었다. 올해 외부자금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업체는 88%로 나타났다. 외부자금 조달

형태는 ‘은행자금’이 81.1%로 가장 높았다. ‘정책자금’(10.6%), ‘비은행금융기관자금’(7.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자금 활용이 전년과 비교할 때 6.6%포인트 증가했다.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났을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약 2배에 달한다. 금융기관 자금차입시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 담보’가 44.6%로 가장 많았다. ‘순수신용’(25.1%), ‘신용보증서’(17.2%) 순이었다.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로는 ‘높은 대출금리’(3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까다로운 대출심사’(30.3%),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5.5%) 등이 주요 애로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서는 응답업체의 50.0%가 ‘기술력 성장성 우수기업에 집중지원’을 꼽아 가장 많았다. ‘저신용 중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25.0%)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금융 저리지원’(40.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기자금 지원’(37.0%),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관행 개선’(22.3%) 순이었다. 김영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주 미국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점차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이미 중소기업 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자동차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아자동차는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판매하는 모든 활동에서 얼마나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기아차는 2012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 2014년과 올해 재인증에 성공했다. 기아차는 ▲차량 입고부터 수리, 출고까지 전 서비스 과정에서 모바일을 활용하는 스마트 고객 응대 시스템 ‘레드센스’ ▲고객 맞춤형 차량관리 모바일 앱 ‘큐프렌즈’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기반 채널 ‘K플라자’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 고객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급, 사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남평, 최고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에서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80만원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지하1층 지상4층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61개
- 법인체 인수 가능
- 동업 운영 하실분 환영
- 리모델링 중 (4억예산)
- 매매 - 협의
- 대출 - 8억 있음
- 감정가 - 현재 15억
- 주인직매 H.010-3605-5000